

# 高峯 사상에 잔물지다



2013년 11월 2일 월봉서원에서 열렸던 고봉문화제 모습. 광산구청 제공.

“봄은 꽃이 피어 초가집에 와 있고 / 산에는 석양 빛 머물렀네 / 가을 하늘 아래 홀로 지팡이 짚고 있으니 / 맑은 이슬이 나의 옷을 적시네 / 옛 고을에는 성곽도 없고 / 산 서재에는 나무 숲만 우거져 있네 / 물 건너에서는 차가운 다름이 소리 들려오네” (‘만망(晩望)’ 중에서)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1527~1572)은 광주 광산에 태어나 1558년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승문원부정자에 등용. 퇴계 이황과 13년 동안에 편지로 주고받은 사칠논쟁(四七論爭)은 조선유학사상의 꽃으로 불릴만큼 후대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선조 때 우부승지·성군관 대사성을 역임했고 공조참의를 지내다 45세에 타계했다.

퇴계가 고봉보다 훨씬 연배가 위지만 고봉의 식견이 높아 서로 통(通)할 정도로 학문적 교류가 깊었다. 두 학자가 13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주제로 펼친 논쟁은 한국 유학사의 한 획을 그은 유명한 논쟁으로 알려져 있다.

고봉은 유학자로서뿐 아니라 문학자로서도 예술적 조예가 깊었다. 대표작 ‘만망’에서 보듯, 그는 학문을 깊이 궁구하면서도 서정적 시풍을 견지할 만큼 학예의 경지가 남달랐다.

고봉 기대승을 기리는 고봉문화제가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월봉서원에서 개최된다. 고봉문화제추진위원회와 문화기획사 라우가 주관하고 광산구와 문화재청 주최로 ‘고봉학술대회’와 함께 열리는 고봉문화제는 시대를 넘어 이어져온 고봉의 생애와 사상을 들여다본다.

## 고봉 기대승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1527년 광주 광산에서 태어나 1558년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승문원부정자에 등용. 퇴계 이황과 13년 동안에 편지로 주고받은 사칠논쟁(四七論爭)은 조선유학사상의 꽃으로 불릴만큼 후대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선조 때 우부승지·성군관 대사성을 역임했고 공조참의를 지내다 45세에 타계했다.

기도 하다.

첫날(31일)에는 10시부터 장애인들이 참가해 만두를 빚고 떡을 만드는 ‘철학자의 부엌’이 펼쳐진다. 김치 담그기에 담긴 철학적 의미, 숙성의 과정, 생각의 어우러짐을 숙고하는 자리다. 이어 고봉의 시문학과 국화·매화에 결집된 의미를 연계하는 ‘고봉을 이야기하다’가 진행된다.

저녁(7시)에는 조선식 ‘문화 살롱’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살롱 드 월봉’이 펼쳐진다. 고품격 인물 교류마당인 ‘살롱 드 월봉’에서는 차를 곁들인 환담과 공연, 토론이 진행된다.

둘째 날(오전 10시~오후 3시)에는 교육관에서 흥승지 순천향대 교수 사회로 ‘고봉, 배우고 가르치다’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고봉과 교유한 인물들의 탐구를 통해 고봉의 삶을 재조명하고 우리 시대의 삶을 반추하는 자리다.

김풍기 강원대 교수의 ‘고봉의 사승(師承)’, 박동욱 한양대 교수의 ‘고봉의 문인들’, 김경호 전남대 교수의 ‘고봉과 일제이항의 관계와 논쟁’, 조근우 마한문화연구원장의 ‘고봉 학문의 산실 귀전암, 낙암’ 발표가 이어진다.

이밖에 행사 기간에는 분재·도자기 전시회와 고봉 유물 및 사진 전시회 등도 마련돼 있다. ‘선비의 하루’, ‘어린이 그림대전’, ‘철학자의 숲’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볼거리도 예정돼 있다. 문의 062-960-8272.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31~11월 2일 광주 월봉서원서

### 고봉문화제 열려

### 철학자의 부엌·살롱 드 월봉 등

### 고봉의 철학·문학 체험 시간

‘고봉에 잔물지다’(잔잔하게 물들다는 뜻의 고우어)라는 행사 주제가 말해주듯, 이번 문화제는 호남학의 원류로 지칭되는 고봉의 사상과 철학이 우리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 숨쉬는지 돌아보는 자리다. 더불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고봉의 철학과 문학을 느껴보는 계기가

## ‘미래 소리꾼’들의 신명나는 국악 무대

###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국악제

### 다음달 1일 진도에서 열려

‘미래 소리꾼’의 열정을 한 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국악 영재들의 신명나는 무대가 진도에서 펼쳐진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29일 “민속문화예술 특구인 진도군과 함께 오는 11월 1일 오후 3시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국악제’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민국 청소년국악제’에는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등에서 수상한 실력과 국악영재들을 비롯해 지상파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해진 국악신동 등



조동문 김기인

이름을 날리 알린 참가자 340명으로 구성된 24개팀이 신명나는 무대를 다채롭게 선보인다.

또 ‘외국인 소리꾼’으로 유명한 캐나다인 아빠와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파란 눈의 판소리 부자’로 유명세를 탄 김

기인(출신 금병초3) 군이 판소리 ‘우물가’를 부른다. 이 밖에 중국조선족전통예술경연대회 대상을 받고 중국 CCTV 어린이출판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됐던 김소연(중국 연변예술학교 2)양은 창작무용 ‘기복’을 선보인다. 태어나서 한번도 세상을 본 적 없는 ‘시각장애인 소리꾼’ 조동문(전북 맹아학교 고2)군은 ‘흥타령’을 부른다.

또 지적장애 3급과 언어장애를 극복하고 전주 예술중학교에 수석 입학해 구성된 소리로 전국 판소리 대회를 휩쓸고 있는 장성빈(전주 예술중 3)군이 판소리 ‘심청가’ 중 ‘아기달래는 대목’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문의 061-280-5831.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 무등현대미술관, 레지던스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 30~31일 작가 5명 참여

무등현대미술관(사진·관장 정승규)은 30일~31일 ‘2014년 ART PROCESS 레지던스 프로그램’ 입주작가가 참여하는 오픈스튜디오를 진행한다.

이번 오픈스튜디오 행사에서는 3기 입주작가인 김성결, 유덕신, 성혜림, 송영학, 홍원철씨가 참여해 지난 6개월 동안의 창작활동 성과를 관람객들에게 공개한다.

이날 행사는 오후 4시부터 레지던스 창작스튜디오 소개, 입주작가 소개, 오프닝 축하 공연, 파티 순으로 진행된다.

무등현대미술관 ‘ART PROCESS 레지던스’는 참여 작가들이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주민과 교류하면서 예술적 소통을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입주작가들의



창작 결과물은 오는 11월 결과발표 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선보인다.

한편 무등현대미술관은 ‘성촌예술마을 만들기’(2010), ‘예술을 꿈꾸는 마을-

자연, 인간 그리고 예술’(2013) 등을 주제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문의 062-223-6677.

김경민기자kiki@kwangju.co.kr

## 여수시 미술관 설립 위한 심포지엄

### 내일 여수문예회관, 국내 미술계 전문가·시민 등 참여

### 기조강연·지정토론회

여수 출신 천재화가 (故)손상기 화백 작고 26주기를 맞아 여수지역에 미술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여수시는 29일 “손상기 기념사업회와 함께 ‘여수지역 미술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오는 31일 오후 3시 여수문예회관에서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미술계 전문가와 미술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해 기조강연,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

으로 진행된다.

최병식 경희대 교수의 ‘21세기 문화전략, 지역 미술관의 역할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가 6명이 토론을 갖는다.

김찬동 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은 ‘지역미술관 설립의 중요성과 사회적 기능’을, 이지호 이음노미술관 관장은 ‘작가미술관의 운영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신병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회장, 박진현 광주일보 부국장, 김홍용 손상기기념사업회 상임대표 등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문림장흥’ 문학기행

### 광주전남소설가협회, 11월 2일

깊어가는 가을 광주전남소설가협회(회장 전용호)가 ‘문림장흥’으로 문학기행을 떠난다. 오는 2일 작가들과 함께 떠나는 문학기행은 장흥의 정자 문화를 볼 수 있는 동백정과 부춘정을 답사하고 장흥이 낳은 이청준, 한승원, 이승우 소설가의 작품 배경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짜여진다.

특히 이번 기행에는 고향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승원 작가가 동행해 창작 과정 등을 소재로 문학 좌담회를 나눌 예정이다. 출발은 오전 9시 5·18기념재단 주차장이며 참가비 1만원. 일반인도 참석 가능하다. 문의 010-4137-4462. /박성천기자skypark@

#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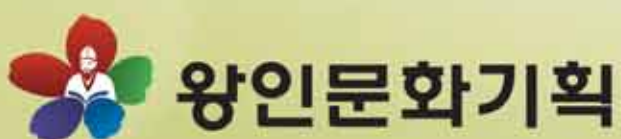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